

근현대 스님 유물은 종단 역사 전승 기반

불교중앙博, 주요 스님 소장품 기증 운동 시작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이 근현대 스님들의 소장품을 기증받는 등 종단 역사 전승 기반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1월 2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4년 신년 사업으로 △근현대 스님 소장 유물 기증 운동 △사찰 등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금석문 탁본사업 △탑의 사리장치와 불상의 복자 등 특별전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현대 스님 소장 유물 기증 운동은 불교계의 유물기증문화 확산과 박물관 소장 유물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근현대 스님들의 유물 기증 사업은 불교계 안에서도 현저히 인지도가 낮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인식 개선에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은 1차적으로 현직 종정 스님, 원로·중진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종회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스님의 소장품의 기증을 유도하며, 향후 역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 유물은 사용하고 있는 염주, 가사, 발우, 주자 등 생활용품과 법구를 비롯해 종단 역사 정리에 도움이 되는 유물, 기록사진, 서신, 승려증 등 근현대 자료까지 포함된다.

원할한 유물 기증을 위해 기증 시 특전과 예우도 마련한다. 각종 전시 출품 시 기증자 성명을 명시하고 유물의 복원 수리, 훈증 처리와 복제

품을 요구했을 경우 복제품 제작이 이뤄진다. 또한 기증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증자 및 기증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서 발급과 총무원장 명의의 감사패도 증정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 스님은 “근현대 스님들의 자료를 문중 별로 소장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오히려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역대 종정 스님들의 가사 한 벌도 종단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다. 종단 역사를 정리하는 차

현 원로·중진 스님도 대상

향후 역대 종정으로 확대

기증 시 예우·특전도 마련

유물 기증 문화 조성 기대

원에서 도 원로·대덕 스님들의 주요 소장품을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우선적으로 현존해 있는 주요 스님들의 소장품 기증을 독려한 뒤 역대 종정 스님 문중에게도 소장품 기증을 부탁하려 한다”면서 “기증의 방법은 연구 기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장 유물 기증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근현대유산 수집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불교사 전문가인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유산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시대의 생활상과

사상 등 변화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라며 “이런 작업들이 수반돼야 종단의 교과서적인 ‘통사(通史)’를 기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물 기증운동은 불교를 역사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불사”라고 평가하며 “불자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소유자들의 자발적 보존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찰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023년까지 10년 동안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올해 우선적으로 유물 소장자 및 관리자 교육을 열고 문화재에 대한 기본 소양과 책임의식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덕문 스님은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이 업체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불교계가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 자료를 총망라하기 위한 금석문 탁본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목록화 조사가 완료됐으며, 올해에는 경상 북도의 금석문들에 대한 탁본, 사진, 영상 촬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전시회도 계획 중에 있다. 오는 6월에는 ‘탑의 사리장치와 불상의 복자’를 주제로 오는 9월에는 ‘주사와 봉은사’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종일 기자



1월 23일 내성천을 자비나눔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이 내성천 지킴이 지을 스님(사진 가운데)에게 내성천 생태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내성천 살리기에 조계종도 적극 동참하겠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1월 23일 지을 스님 격려 방문

경북 영주 내성천은 인근 영주댐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이가 지을 스님이다. 스님은 2012년부터 강둑에 텐트를 설치하고 내성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저울바람처럼 차갑다.

이런 세간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연과 환경에 대해 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해 조계종이 움직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1월 23일 오후 경북 영주 내성천을 방문해 지을 스님에게 격려하고 영주댐 공사로 인해 훼손된 내성천 상류와 중류 지역을 모니터링했다.

자승 스님은 가장 먼저 내성천 지킴이로 활동 중인 지을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텐트를 찾아 손수 차를 내리며 격려했다. 이날 환담에서는 자승 스님은 지을 스님에게 내성천 변화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지을 스님은 “현재 내성천의 변화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내성천 보호를 위해 스님들께서 1000명만이라도 땅 한 평 사기운동을 시작해주시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종단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본사 주지 스님들과 함께 협조해 1000명 정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종단과 교구본사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부장 보화 스님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장 스님들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스님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첫 자비나눔 방문으로

내성천 시찰하며 상황 파악

“종단도 땅 한평 사기 동참

교구본사 협의 1천명 마련”

이날 자승 스님은 지을 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텐트 주변 내성천 주변과 미림마을, 맥실마을, 우래교 등을 걸으며 내성천의 변화 상황을 살폈다.

이날 자비나눔 방문에는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보화 스님, 교운사 주지 호성 스님,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신종일 기자



‘종교인 과세’ 2월 국회서 논의되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낙희 기획재정부 세계실장은 1월 23일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지난 연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

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소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할 것이냐는 두고 종교단체 등과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해 정부가 종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조세소위는 ‘종교인소득’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 기저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과 불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기준에는 우려를 표해 왔던 만큼 이번 국회 논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삶은 고통이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